

국립전주박물관 브랜드북 소도록 위탁출판 제안서 디자인 시안 참고자료

2022. 10.

□ 브랜드 ‘조선 선비서예’ Literati Calligraphy in Joseon Dynast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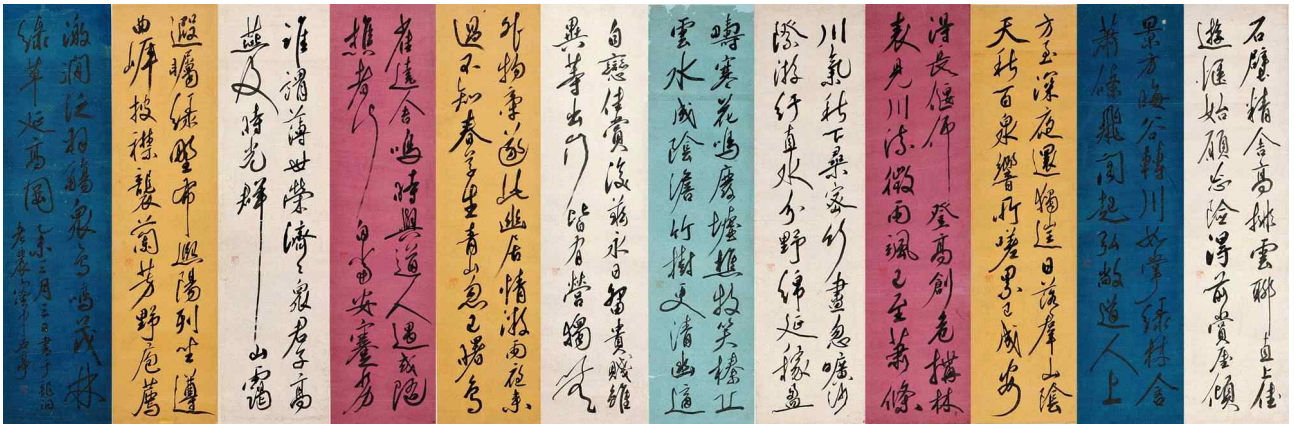
옛 선비들의 마음과 삶을 담고 있는 서예는 글씨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주는 명품으로, 편지나 일기와 같은 일상의 흔적으로 서예의 아름다움을 만납니다. 조선 선비들이 글씨를 쓸 때는 옛 명필의 글씨나 그것들을 모아 만든 법첩法帖을 곁에 두고 좋은 글씨를 쓰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선비의 서예는 옛 모범을 익히고, 그 바탕 위에서 창작하는 예술로 천년이 넘는 시간을 초월한 ‘법고창신法古創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중국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303-361)를 위시한 서예가들의 법첩과 김구金絿(1488-1543), 한호韓濩(1543-1605), 이광사李匡師(1705-1777), 정조正祖(재위 1776-1800) 등 조선시대 선비와 왕의 글씨는 복고와 창조라는 조선 서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1841-1910)은 고전을 공부하며 예술세계를 이루어갔던 선비 서화가의 본보기로 그의 글씨와 사군자는 선비들이 붓을 들며 가졌던 마음가짐과 정성을 그대로 전합니다.



선비서예실 전경

[주요문화재]



초서12폭 병풍 / 草書十二幅屏風 / Lee Jeongjik's calligraphy

이정직李定稷(1841-1910)

조선 1895년

병풍, 종이에 먹, 각 면 112.3×31.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5725

이정직이 당唐의 시인 위응물韋應物(737-804) 시 4수를 12폭으로 쓴 작품이다. 오색 바탕의 각 폭은 글씨를 보다 감각적으로 보이게 하며, 활달한 필치와 경쾌한 속도감으로 구사한 이 초서는 화려한 바탕과 호응하고 있다. 이정직이 깊이 관심을 두고 영향받은 미불米芾과 동기창董其昌의 서풍 영향을 보이는데, 특히 미불 서풍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운필로써 변화의 묘를 추구하는 듯하다. 대체로 이정직은 작품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함축적인 힘 조절을 보여주는데, 이 글씨에서는 필획의 운용을 통해 활달한 기세氣勢와 자유로운 생기를 잘 표현하였다. 길고 시원하게 뻗는 갈필획에서 감흥이 더욱 극대화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는 유공권柳公權과 회소懷素와 황정견黃庭堅의 초서를 연상케 하는 표현도 보인다. 활달하게 구사한 행초서로 마지막 폭의 “乙未三月三日書于龍洞老農室中石亭”을 통해 1895년의 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미술공예실 Gallery of Arts and Crafts

[소개]

미술공예품은 진리와 일상을 예술로 끌어올린 인간의 숨씨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의식 속에는 삼국시대부터 함께한 불교가 깊게 녹아 있습니다. 불교미술에서는 사찰의 대표 예술품을 마주하며 우리나라 불교에 담긴 정신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흙, 불,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만드는 예술품입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유약과 화려한 문양 장식, 분청사기의 일정한 형식과 그와 상반되는 자유분방한 무늬, 백자에 담긴 고상한 품격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예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쓸모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금속, 나무 등 자연에 있는 재료로 도구를 만든 일상 속 예술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술공예실 전경

[주요문화재]



범종 靑銅梵鍾(傳樂壽亭出土) Buddhist Bell
고려, 전체높이 77.1, 전 낙수정, 보물

범음구梵音具는 소리가 나는 악기로 흔히 네 가지 보배[四寶]라고 일컫는 범종梵鍾, 법고法鼓, 운판雲板, 목어木魚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음구는 소리만 들어도 중생衆生이 구제된다고 여겨 흔히 부처의 말씀에 비유된다. 이 범종은 종을 매다는 용뉴龍鈕 부분과 음통音筒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거의 온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撞座를 중심으로 4개의 비천상이 구름 위에 꿇어앉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다. 종의 어깨 부분인 상대와 맨 아래 부분인 하대에는 띠를 돌리고 반원 무늬와 넝쿨무늬를 그 안에 장식했다. 상대와 이어진 사다리꼴 모양의 유곽 테두리에는 넝쿨무늬를 얹게 조각하였다. 균형을 이룬 몸체와 당좌, 비천飛天과 넝쿨무늬 등의 장식으로 볼 때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하여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범종으로 볼 수 있다.

이 범종은 전주 낙수정樂壽亭(현재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낙수정 소유주가 일본 총독에게 기증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99년 다카하라 히미코[高原日美子]씨가 기증하면서 7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상감 청자

상감 청자象嵌靑磁는 그릇의 표면에 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 그 안에 붉은 흙[赭土]과 흰 흙[白土]을 채워 넣어 흑백의 무늬로 표현하는 청자를 말한다. 부안 유천리에서는 모란, 연꽃, 국화 등 식물무늬, 구름과 학무늬 등과 더불어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과 용무늬가 새겨진 청자가 발견되었다.

“고려요의 그릇은 (분청 색깔이 나는데 용천요의 것과 비슷하다) 고려청자 위에 흰 꽃송이 무늬가 있는 것은 감히 값을 매길 수가 없다.

高麗窯器皿（色粉靑 與龍泉窯相類）上有白花朵兒者 不甚直錢”

- 명명 조소曹昭 편찬 『격고요론格古要論』(1388) 중 「고요기론古窯器論」 고려요高麗窯 조



청자 국화 모란무늬 병 靑磁象嵌菊花牡丹文瓶 Celadon Bo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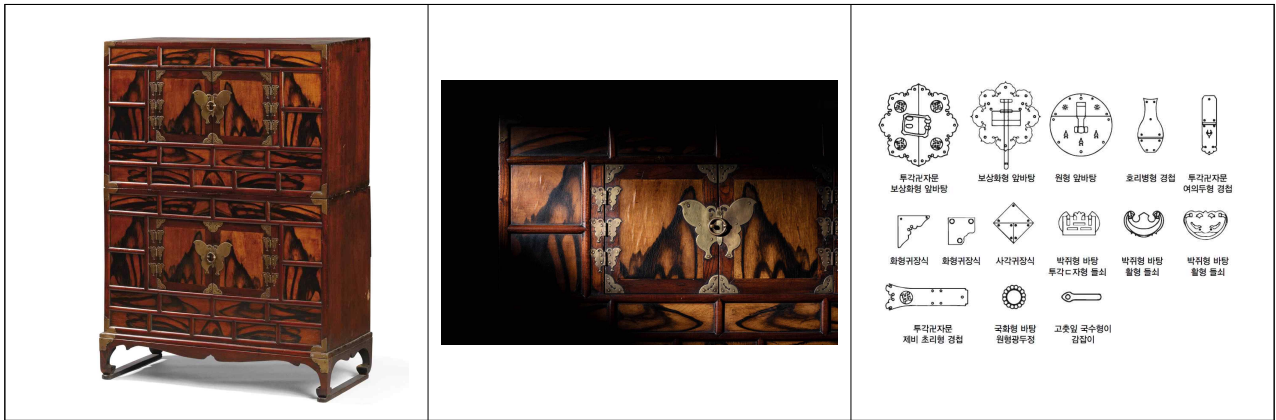
고려, 12세기, 높이 33.5

청자 국화 모란무늬 합 靑磁象嵌菊花牡丹文母子盒 Celadon Covered Box

고려, 13세기, 지름 20.5

청자 용무늬 매병 靑磁象嵌龍文梅瓶 Celadon Maebyeong

고려, 13세기, 높이 52.5



전주장 全州櫥 Clothing Chest

조선, 높이 117.0

전주장全州櫥은 조선시대 전주 지역에서 제작된 목가구로 장櫥과 반닫이의 형태가 결합된 가구이다. 전주에서는 전라도 동부 산지의 풍부한 목재를 공급 받아 솜씨 좋은 장인들이 수준 높은 목가구를 생산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유한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제작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었다. 전주장은 보통 2층 내지 3층으로 위쪽은 장, 아래쪽은 반닫이의 형태이다. 튼튼한 느티나무, 소나무나 나뭇결이 아름다운 먹감나무를 주로 사용하였고, 제비초리, 불로초不老草, 보상화寶相華, 만자근字 모양 등의 금속으로 장식하였다.

목가구에 부착한 금속 장식을 장식裝錫이라고 하는데, 무쇠, 주석, 백동 등이 사용되었다. 장식은 가구의 종류나 쓰임새에 따라 형식이 달라진다. 목재의 결합이나 모서리에 힘을 보강하기 위한 앞바탕(얇고 판판한 쇠로 만든 쇠 장식으로 손잡이나 자물통을 받쳐 주는 밑판), 광두정(머리가 넓은 못), 감잡이(가구의 모서리나 짜임 부분을 감싸 서로 잡아 주는 장식)와 경첩, 들쇠(반달 모양의 손잡이), 자물쇠 등이 있다. 장식은 목가구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모양과 무늬가 적절히 표현되어 더욱 품격 있고 조화롭게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사랑방 가구에는 단순한 모양의 장식이 사용된 반면, 안방 가구에는 복이나 장수를 기원하는 문양이 사용되었다.